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철민	학번	
이메일	muddylife@hanmail.net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 Public Administration	(국가) USA
기 간	2020	[귀국일: 2020년 12월 2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0년 12월 일

신 청 인 : 김 철 민 (서명 생략)

○ 교육기관 개요

- 기관명 : 미주리대학

- 소재지 : 미주리주 컬럼비아



- **현 황** : 미주리 대학은 미네소타 주에서 발원하여 미대륙을 동서로 양분하여 흐르고 있는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볼 때 강 서쪽지역에서 최초(1839년)로 설립된 공립 대학교이다.

본교는 세계 최초로 저널리즘을 전문적으로 교육한 대학으로 아직도 신문방송언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주리대학은 미주리 주에서는 유일하게 미국대학협회(34개 공립대학교 + 26개 사립대학)의 회원대학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50개 주와 세계 100 여개 나라에서 온 약 3만 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국제학생은 2천여 명이고 이중 한국 학생은 약 100정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입학생의 학업수준을 보면 ACT(미국대학 수능시험, America College Test) 성적이 평균 26.3(5과목, 평균 36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20.8 보다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이다. 매년 205,000,000 달러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본교 출신 George P. Smith 박사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졸업생 현황을 보면, 전 세계에 330,000 여명 이상이, 미주리 주 내에서는 180,000 여명 이상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미주리 주는 한국전쟁과 인연이 있는 트루먼 대통령이 출생한 곳으로, 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청년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 그의 영향으로 그 때부터 한국 유학생이 장학생으로 미주리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미주리 대학의 상징은 호랑이(Tiger)인데, 남북전쟁 당시 미주리 지역을 지키던 군인들의 전투력이 용맹스러운 호랑이와 같다고 유명세를 탄 데서 비롯했다고 한다. 트루먼 대통령의 업적과 호랑이의 용맹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미주리대학의 마스코트인 호랑이는 “Truman the Tiger” 라고 불리며 2004년과 2014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멋진 마스코트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그 때문인지 마스코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Truman the Tiger” 로 디자인한 의류, 가방, 신발, 깃발, 인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월마트 등 현지 상점에서 별도 코너가 마련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있게 팔리고 있다. 차량 트렁크에 호랑이 인형을 넣고 꼬리만 길게 내 놓고 다니는 차량이나 호랑이 문양이나 색(금색과 흑색의 얼룩무늬)으로 도안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흔히 만날 수 있다.

Truman the Tiger



University of Missouri

○ 일상 생활 (기후, 의식주, 자녀 학교 등)

- **첫인상** : 상당히 여유롭게 보였다. 경유지인 달라스 공항에 내려 미주리행 비행기를 갈아 타는 데만 두 세 차례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탑승구가 바뀌었는데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며 누구도 서두르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또한 최종 목적지인 미주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인천공항에서 부쳤던 짐 일부는 달라스 공항에 남겨지고 나머지만 탑승객과 함께 운송되어 도착했다. 난감했다. 하지만 누구도 서두르거나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화물이 많을 때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화물 영수표와 거주지 주소를 남겨주면 다음 비행기로 이송되었을 때 집까지 운송해 준다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숙소로 돌아가 기다렸는데, 정말로 딱 하루 뒤에 숙소 현관 앞까지 나머지 짐을 배달해 주었다. 헛갈렸다. 친절하고 정확한 것인지, 엉성한 것인지, 여유로운 것인지...

- **기후** : 한국과 비슷한 기후로 알고 왔는데, 적어도 12월말에서 2월까지만 두고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다. 눈도 더 많이 더 자주 내리는 것 같다. 공립학교(초중등)의 경우 눈비가 많이 오면 컬럼비아 시교육청 재량으로 휴교를 한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7일 정도 휴교한 것 같다. 물론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 대학생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휴업 휴교가 이처럼 잦지는 않다고 한다.

- **의식주** : 생필품 물가가 비교적 싸다. 특히 고기, 유제품, 농산품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옷이나 기타 공산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공구 및 수리도구가 다양하고 많은데 이곳 사람들은 새 물건을 사기보다 기존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 중고매장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도심 근교에는 코스트코 만한 대형 중고 매장이 있었다. 젓먹이 아이용 장난감, 코카콜라의 연대별 상표, 서부시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조잡하고 녹슨 칼이나 총, 오래된 수레 부품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것 까지 모아다 팔까 싶을 정도로 별 에 별 것을 다 모아다 놓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먼지 쌓이고 구겨지고 녹슨 물건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득템한 양 웃으며 호주머니 달러를 지불하고 사들고 나간다. 단순한 인테리어용뿐만 아니라 실제 재활용을 위해서도 구매해 간다고 한다. 한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보았던 버려진 물건들 대부분을 이곳 중고 매장에 가지고 와서 진열한다면 이곳 사람들이 아마 새것으로 착각할 지도 모르겠다. 시장에는 헌 것이 새 물건과 공존하고, 사람들은 중고를 사용한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움추려 들거나 새것을 산다고 뽐내듯 우쭐해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서양인들을 우리보다 실용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땅이 넓고 가끔씩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2층 정도의 주택이거나 5층 이하의 건물들이다. 컬럼비아에서 최고층 건물은 시청 옆에 있는 약 10층 정도의 주차건물인 것 같다. 때문에 넓게 퍼진 도심지형이라서 교통체증이 거의 없지만 대신 어디를 가더라도 차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 일반 가정 주택은 우리나라로 보면 단독주택형태가 많다. 특히 듀플렉스(Duplex)라고 하는 두 가구가 한 가옥 형태를 가지고, 지하실 공간을 둔 목조형 주택이 많은 편인데, 주변의 많은 나무를 활용할 수 있어 건축비용이 적게 들고 수리해가며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런 것 같다. 지하공간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시 대피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 **공립학교** : 초등학교는 5년제이고, 중학교는 6학년~8학년, 고등학교는 9학년~12학년으로 나뉘어져 불리고 있는데,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무상교육이다. 중학교의 경우, 1인 10아이 패드가 주어지 학교 수업은 물론 집에 가지고 가서 자율학습이나 숙제 등에 활용한다. 물론 학

년이 오를 때마다 반납해야 하지만, 전산교육실 학습교재로 해당 수업 시간 동안만 학생들 한 명씩에게 주어지는 한국보다도 더 대담하고 넉넉하다. 수업도 별도 교과서가 없이 아이패드로 진행한다. 숙제도 간혹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학생들에게 하는 모든 전달 사항은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에게 동시에 통보된다. 주요한 학사정보나 숙제, 성적 등 학생 관련 모든 정보가 매일매일 통보되거나 등록되어 학부모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언제라도 자녀의 학교생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종이로 된 통지문도 간혹 있으나 학부모 서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학교소식을 주고 받는다.

컬럼비아의 경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이 모두 다른데 중학교가 7시25분으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등교한다. 하교 시간도 위 순서와 같은데 중학교의 경우 2시35분이면 모두 끝난다.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가 차량으로 등하교시킨다. 스쿨버스로 한 학교에 10여대가 운행되지만, 잦은 정차나 이용학생이 많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 부모가 직접 등하교 시킨다.

중학교의 경우 하루 7~8시간의 수업을 받는데, 수업시간 50분, 쉬는 시간 4분, 점심시간 20분으로 짜여 있고 점심시간은 학년별로 다르게 하여 점심장소가 붐비는 것을 피하고 있다. 점심식사는 우리와 달리 유상급식이다. 한 끼당 약 3달러 정도인데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시락을 준비해 오는 것은 자유이다.

매달 과목별로 단원평가 식의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all 'pass' 나 'A' 등급)의 경우에는 한 달 유효기간의 Gold Pass라는 표를 학생들 앞에서 배부한다. Gold Pass를 소지한 학생은 한 달 동안 약간의 우선권을 지닌다. 점심식사 때 도착한 순서와 관계없이 맨 앞에 설 수 있고, 하교 시간이 조금 남았더라도 당일 수업이 모두 끝난 경우에는 대기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먼저 하교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지각을 해도 벌칙을 면제 받는 등의 소소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학생들에게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자부심이 생기고 학업에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 한 달의 유효기간이라서 누구라도 다음 달에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미 받은 사람도 혜택이 영구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회부여가 평등하고 현재의 혜택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습관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자동차 운전** : 컬럼비아의 자동차 운전은 같은 거리를 운전해도 한국보다 피로감이 덜었다. 양보하고 여유 있게 가더라도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거나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거나 바짝 달라붙거나 갑자기 확 앞지르기 당하는 경우가 확연히 적었다. 생각건대 이곳 사람들은 줄을 서서 대기하는데 익숙한 문화를 가진 것 같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용무가 완전히 끝나 후라야 내 권리의 차례가 온다는 인식이 행동습관에 밴 것 같다. 그래서 가령 햄버거 가게 앞에서 줄에 선 사람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더라도 눈치를 주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순서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보러 가는 것을 종종 보았다. 이러한 습관이 도로에서도 보여 지는 것 같다. 일단 내 앞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흐름을 순리대로 따를 뿐이지 욕박지르거나 앞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여유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고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 대학원 생활

- **교과목 수강** : 졸업을 위해 30학점(10과목, 1과목 3학점 기준)이 필요하다. KDI에서 Transfer 가능한 6학점을 제외하고 24학점(8과목)을 이곳 대학원에서 수강해야 한다. 수강신청 전에 있는 면담자리에서 주임교수님이 1년 동안 수강할 8과목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므로 이것

대로 수강하면 된다. 대개 봄학기 4과목, 가을학기 4과목으로 진행되며, 희망자에 한하여 여름학기 동안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봄학기 4과목, 여름학기 2과목, 가을학기 2과목으로 분할하였다. 대학원 여름학기 종강시기가 중학교 자녀의 여름방학 시작과 비슷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가을학기 중에 귀국준비 등에 소요될 시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수업과정은 KDI와 비슷하게 질의응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봄학기 중간 즈음부터 모든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가을학기 부터는 출석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었다. KDI가 주로 경제학 과목이라면, 이곳은 대부분 행정학 과목이다. 이론이 20%라면 80%는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로 다룬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거의 모든 과목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평가, 대책 등을 주로 다루었다. 성적은 시험도 있지만 주로 과목당 2~3개의 에세이 제출로 평가되는데, 관련 학습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인용하는 수고가 만만치 않지만 교수님들의 과제평가는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었다.

- **교과 외 활동** : 캠퍼스 생활은 봄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생활에 적응할 무렵부터 코로나 영향을 받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Buddy Program 등 현지 학생과 교류하거나 Asian Center에서 주관하는 현지 체험 프로그램 (스포츠 관람, 문화 체험) 등도 다수 있는 것 같았는데, 역시 코로나 여파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기타

-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 KDI 1년이 외국학생과 함께 영어로 진행하는 참여식 수업에 대한 KDI에서 주관하는 warming up 과정이라면, 외국학교에서의 1년은 익숙하지 않는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끌고 나가야하는 자기주도형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아침 식사 메뉴를 위해서 전날 어느 가게에 가서 무엇을 구입해 놓아야 할 지부터, 수업 준비나 정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볼 것인지 알 것인지에 대한 선택까지 모든 것이 익숙지 않은 것들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감감할 수도 있지만, 환경적응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자유로울 수도 있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출입국 준비 과정** : KDI 가을학기부터는 수업과 함께 해외대학 지원과 출국 위한 비자나 항공편 준비 등으로 꽤 바쁘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름학기까지 최대한 많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해외대학 지원을 위한 영어성적을 확보해 두면 한결 수월하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나 그래도 하는 것이 정신과 육체건강에 좋다. 비자, 여행자보험, 항공편 등은 동료 학생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복수의 여행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것보다 수월하다. 해외에서 거주할 집과 자동차 등도 KDI에서 제공하는 해외 거주 선배학생 연락처를 통해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KDI 가을학기, 출국준비 등과 모든 것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게 되므로 사전 준비가 소홀하면 해외생활 초기 정착부터 자칫 멘붕이 올 수도 있다. 해외생활은 단기 임시 생활이므로 주거와 자동차 등을 한국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1년이 지나면(또는 연장하는 경우라도 1~2년 후에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귀국해야 하므로 초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유혜경	학번	
이메일	Balbina111@naver.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Public Affairs	(국가) U.S.
기 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귀국일: 2020년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기후

• 한국보다 날씨의 변동이 많은 편. 겨울에도 하루가 따뜻하다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살이 에이는 바람이 불 수 있음. 그래서 눈이 많이 와 깊게 쌓여도 따뜻한 날에 금새 녹아버리기 때문에 겨울에도 푸른 잔디를 볼 수 있음. 현지인들은 반팔, 긴팔을 계절과 상관없이 입고 다님. 현지인들은 추위에도 얇은 옷을 입기 때문에 쇼핑매장에서 방한의류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한국에서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을 준비해오는 것이 유리.

• 여름에는 햇빛이 강렬하지만 그들은 시원. 봄, 여름, 가을에는 보통 새벽녘에 비가 오며 낮에는 맑아서 우산이 거의 필요 없음.

- 지리적 위치

• 컬럼비아는 미주리주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으로도 이동하기 좋지만, 어느 지역이든 장거리 여행이 될 수밖에 없음.

• 미주리주 내에서 인근의 큰 도시는 서쪽으로 세이트루이스로(2시간 정도 소요), 동쪽으로 캔자스 시티(1시간 40분정도 소요)가 있음. 세이트루이스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만큼 치안에 조심해야 함. 양 두 도시에 대형 아시안 마트나 한인마트가 있으므로 가는 길에 쇼핑을 계획하는 것이 좋음.

•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는 시카고, 남쪽으로는 댈러스를 거쳐야 함. 겨울에 시카고에서 콜롬비아간 비행기는 결항이 잦다고 함. 댈러스는 겨울에도 따뜻하고 결항이 드물기 때문에 댈러스를 거치는 여행경로가 유리할 수 있음.

- 생활관련 사항

• 도시 규모에 비하여 쇼핑물이 많고 물가가 저렴하여 살기 좋음.
• 달마다 할인행사가 있으므로 정가를 사기보다는 할인기간을 노리는 것이 좋음.
• 기온차가 크고 미국 집들은 방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벽과 창이 얇음), 전기요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오지 말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다 (전압, 가격 등).

- 자녀학교

• 초등학생들은 오전에 간식을 먹기 때문에, 혹은 수업 중에도 배고프면 먹기 때문에 스낵류를 준비해주어야 함.

• 달마다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교직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학부모들한테 기부를

받음. 준비해야할 음식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야 준비하기 차 (tea)나 음료수 같은 손쉬운 음식을 배정받을 수 있음. 물론,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

- 학기초, 또는 전학초기에 학교 또는 교사가 준비물 리스트를 주는데, 대부분의 준비물은 교사가 받아서 1년동안 학급친구들과 함께 사용

- 금요일마다 Friday file을 집에 보내주는데, 1주일간 자녀의 학습내용을 볼 수 있고 다음주에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공지가 있으므로, 혹시 받지 못했다면 담임교사에게 문의해야 함.

- 점심은 미리 급식비를 적립하고 급식을 먹을 때마다 차감되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도시락도 가능

- 발렌타인데이에는 교사와 학급친구들 모두의 카드와 선물을 준비해야 함. 선물은 \$2-3수준이면 충분하며 카드는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이름만 적어도 충분

- 학기말 등 교사와 학생간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을 기회가 종종 있으므로 한국에서 저렴한 선물을 준비해오는 것이 좋음. (예: 전통문양 책갈피 등)

- COVID-19때문에 콜롬비아 교육청은 2020년 가을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시작했으나 지역의 발병율이 낮아지자 10월 19일부터 희망학생에 대하여 초등학생만 오프라인 강의 전환했음.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함. 점심은 기존의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각 교실에서 학급친구들과 먹는 방식으로 변경. 학급내 발병자가 생길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최대 해당학급만 폐쇄할 계획.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KDI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KDI의 수업을 잘 쫓아갈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학과공부를 소화할 수 있음.

- 지식의 전달보다는 배운 이론을 실제 공공행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므로,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학기 당 수강과목

- 6 Core Courses와 2 Selective Courses 수강

- 봄학기 (1월말~5월), 여름학기 (5월 말~7월). 가을학기 (8월말 ~ 12월초)

- 예) 봄 학기: 4과정 / 여름학기: 2과정 / 가을학기: 2과정 이수 (조정 가능)

- 수강과목은 담당교수가 추천해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음

- 학기 당 1과정까지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온라인 과정으로 신청 가능. 여름학기는 온라인

- 학기당 최소 3과정을 수강하여야 하나, 마지막 학기는 예외 신청 가능

- 후배를 위한 제안

- 토론에 참여해야만 참여점수를 주는 교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 APA 스타일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바람

- 자신의 분야 중 최신 트렌드로서 레포트 주제로 삼을 만한 것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음.

-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나는 영어로 조별 토론을 할 충분한 회화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별 모임 전 대략적인 프리젠테이션 아웃라인을 작성하여 조원들에게 보여줌. 이후 조원들이 내 아웃라인을 기초로 각자 살을 붙여 완성하였기 때문에 크게 회화실력을 보이지 않고도 조에 기여를 할 수 있었음. 영어실력의 부족한 점은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으

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기 바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콜롬비아는 보통 전에 연수 혹은 학위과정으로 온 한인의 쓰던 집과 살림도구들을 일괄적으로 인수받아 같은 조건으로 집 주인과 렌트 계약을 다시 맺고 살림도구를 물려받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음.

• 장점: 기본적인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며 전주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착 초기에 매우 편리.

• 단점: 모든 살림을 일괄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 본인에게 필요없는 물건이라도 구입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계약을 맺고 입주하며, 계약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

• 장점: 입주청소가 끝난 집에 입주하며, 본인에게 필요한 물품만 구입할 수 있음

• 단점: 정착 초기 쇼핑비용이 커질 수 있음. 첫날 침구와 취사도구에 대한 대책 필요.

- 유틸리티 (전기, 수도) 비용은 콜롬비아 시청에서 부과하는데 시청에 직접 내는 방법 외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청에 비용납부는 드라이브 스루로 이루어짐. 단, COVID-19로 주민들의 활동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온라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미국인들은 상당히 느긋한 편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도 서두르지 않음.

-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잘 웃으며 친절한 편이며 인사를 잘함.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성의를 보이거나 노력함. 질문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며, 질문을 관심과 동일하게 여기므로 수업시간이나 안내받는 자리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음.

- 큰 행사가 있는 날 밤에는 인명사고 (총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시로 무기를 소지한 강도 등이 경찰과 대치하기도 하므로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함.

- 미국인은 자신의 유치부 자녀가 COVID-19에 감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의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미국의 방역시스템이 한국 시스템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음.

- 만족도 설문조사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짐.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해 DMV 사무실에 들러야 하는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설단체이며 전혀 친절하지 않음. 미국 내 거의 모든 DMV 사무실이 고압적임. 오후 3시 경에 예약을 마감하므로 업무가 있을 때는 아침 일찍 가거나 예약하는 것이 좋다.

- 운전면허는 필기 시험 후 3번의 실기 시험 기회가 있으며 3번째에도 합격하지 못하여 주정부 교통국에 Letter를 보내면 실기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줌. 실기 시험내내 과장된 동작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격할 수 있음.

- 쇼핑물에 주차할 때는 보통 사선으로 전면주차를 하는데, 주차방향에 유의하여야 역주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음.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과 한국의 시각을 비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당연히 여기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경험은 미국 학생들에게도 나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 COVID-19의 영향으로 나와 아이들 모두 현지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무척 적어 아쉽다. 뿐만 아니라 달마다 열리는 지역행사들도 모두 취소되어 미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희망을 접고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해야만 한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 나는 배우자없이 아이들만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학교에서 매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허락해주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일하는 엄마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부모님은 내 비자와 연계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B1/B2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동반하였음. 비자 발급절차는 학생과 비슷하지만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때 왜 미국 여행을 장기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함. 발급받는데 4개월이상 소요되었으므로 준비할 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음.

- 미국에 입국할 때 액체류에 대하여 검역이 엄격했는데, 액젓을 개봉해 봤으며 액상 감기약(판피린)은 압수되었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1년이란 시간이 금새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미국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서둘러 매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어렵게 얻은 기회이니 만큼 모두 알차게 이용하여 본인 자신은 물론, 가족, 조직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성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0년 10월 일

신 청 인 : 유 혜 경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하상욱	학번	
이메일	woogaya@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국가) 미국 Public Affairs		
기 간	2020.1 ~ 2020.12		[귀국일: 2020년 12월 2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미주리(Missouri) 주 중부에 위치한 콜럼비아(Columbia)는 미주리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학 도시이며, 진보적인 정치, 저널리즘, 공공미술로 유명하다.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는 미국 개척시대 서부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던 세인트루이스(St. Louis)가,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는 캔자스시티(Kansas City)가 위치하며, 미주리 주의 주도인 제퍼슨시티(Jefferson City)는 콜럼비아시의 남쪽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북동쪽으로 약 7시간 거리에는 미국 5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Chicago)가 있어 대도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미국 어느 곳이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콜럼비아는 주요 인종이 백인으로 이들이 약 75%를 차지하며 매년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에 오를 정도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물가도 싼 편이다. 또한 기후도 한국과 비슷하고 인근에 월마트(Walmart), 거버스(Gerbes), 알디(Aldi) 등 대형 마트들이 많아서 생활하기 편리하여 한국인이 장, 단기간 생활하기에 꽤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녀 학교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되며 나의 자녀의 경우는 Mary Paxton Keeley Elementary School에 배정되었고 이 학교의 교육의 질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교문 앞에 서 계신 교직원 한 분이 계신데,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주고 받으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러한 학교 문화가 꽤 인상적이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대학 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미주리대(University of Missouri) 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Course Grading 기준에서 수업 참여도 (Participation) 점수가 10~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미국 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할 것이다. 지금은 COVID-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오프라인 수업 참여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매 수업시간마다 미국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어민들과 섞여 영어로 내 의견을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 또한 매 수업마다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그 동안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나로서는 참신한 수업방식이 아닐 수 없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KDI 학점 Transfer를 고려하면 미주리대 졸업 이수 학점은 24학점이다. 즉, 총 3 학기에 걸쳐 8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연말 귀국 준비 등 바쁜 일정을 고려하면 가급적 한가한 봄학기에 4과목을 수강하기를 추천한다. 나의 경우는 봄학기 4과목, 여름학기 2과목, 가을학기 2과목으로 수강하였는데, 돌이켜보니 아주 괜찮은 수강 과목 분배였던 것 같다. 대부분의 수업은 짧은 Essay 형태의 Assignment, 수업 도중 Discussion, 그리고 Exam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주리대의 장점 중 하나는 졸업을 위한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Kelly's Ridge Apartment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자녀 학교(Mary Paxton Keeley Elementary School)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Walmart가 있어서 훌륭한 지리적 장점을 가진 곳이다. 초기 입주 시 집에 몇몇 하자가 있었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굉장히 신속히 조치해 주었고 조치결과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 곳 아파트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은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미국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표현력이 내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결론을 추려보면 하나인데, 그 결과를 두고 어찌나 다양한 표현과 예시로 그 결과를 뒷받침하며 설득력을 높이는지 경이로울 정도였다.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결론에 도달하는데 익숙한 한국식 사고방식과는 달리, 미국 학생들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 같았다. 자율성과 주체성을 중요 시 여기고,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참여 정신이

미국을 전 세계 1등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 곳 미주리대의 경우 초기 정착을 지원해 주는 Asian Affairs Center가 존재한다. 은행계좌 개설, 차량 구입, 각종 보험 가입 등 이 센터의 도움으로 초기 정착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생활 도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이 곳 Columbia는 백인들의 비중이 아주 높은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치안도 타 도시 대비 좋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와 아주 비슷해서 생활하기도 편하다.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곳의 맑은 공기이다.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을 연중 내내 경험할 수 있으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하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았던 나에게 있어 이 곳 Columbia는 생활하기 최적의 선택 장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이 곳 Columbia는 미국 중부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로 COVID-19로 인하여 비행기 여행이 부담되는 현 상황에서 자동차 여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그랜드 서클,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를 경유하는 서부여행과 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시카고를 경유하는 동부여행, 그리고 휴스턴, 뉴올리언스, 올랜도, 마이애를 경유하는 남부여행 등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여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점 강점을 가진 곳이다. 혹시 이 곳으로 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여행을 꼭 해보기를 추천드린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이란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곳보다 훨씬 더 광활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곳이다. 한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 전세계적으로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 이런 미국이란 나라의 매력을 단 1년 만이라도 마음껏 느껴보기를 바란다.

교학처장 귀하

2020 년 12 월 3 일

신 청 인 : 하상욱 (인)